

해야 하네. 우리 영혼의 힘에 있어 뮤즈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란, 재갈을 물려 태양신의 말들을 몰았던 호라이●와 같은 게지.

그러니 우리 아드님, 글을 읽으시게나. 우리보다 먼저 글을 썼던 현자들은 우리에게 앞서 역경의 길을 나아간 여행자들이니, 모두가 우리를 저버릴 때조차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길동무가 되어 함께하자고 권하는 걸세. 좋은 책이란 좋은 친구인 셈이야.”

“아아!”

폴이 외쳤다.

“비르지니가 여기 있었을 때는 글 읽는 법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저보다 공부가 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르지니가 저를 자기 짝이라 부르면서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은 괴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으니까요.”

“확실히,”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정인만큼 살가운 짝꿍은 없겠지. 여자에게는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면이 더 많아서 남자의 슬픔을 떨쳐버리게 해주니 말이야. 여자의 애교는 반성에서 생겨나는 어두컴컴한 유령들을 사라지게 한다네. 그 얼굴에는 포근한 매력과 자신감이 어려 있지. 여자의 기쁨이 더해져서 더 생동감 넘치지 않을 기쁨이 어디 있겠나? 어떤

---

●